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김 경 미[†] 이 하 나 정 주 리 정 현 주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향의 하위요인들(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이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수준과 자기주장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화의 하위 집단 중,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경우 불공정성을 낮게 느끼는 집단에 비해 낮은 갈등적 수준, 낮은 자기주장성과 높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도구적 부모화 요인의 경우, 높은 도구적 부모화 경향성 집단은 낮은 자기주장성을 보였지만 정서적 부모화 요인은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불공정성과 정서적 부모화가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정서적 부모화의 설명량은 크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 차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이들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 부모화, 갈등적 독립,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 02) 2123-4877, E-mail : tamara@yonsei.ac.kr

한국사회에서는 유교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孝)가 크게 강조될 뿐만 아니라(최재석, 1982),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하나됨(父子有親)이 매우 중시되어왔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일체(oneness)적 관계라고 할 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고(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여겨져 왔다. 따라서 아동은 독립적인 존재로서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부모의 기분을 맞추고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은 '철든 아이', 나아가 '모범적인 아이'로서 마땅히 지녀야 하는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나고 떼쓰지 않으며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등 마치 성인과도 같은 특성을 가진 아동을 좋은 아동이라고 표상되는 반면, 자기중심적이며 정서적으로 충동적이고 떼를 쓰는 등의 이른바 아동기에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그러나 부모를 배려하여 보살피고 부모의 기분을 맞추는 행동이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며, 또한 바람직하게 산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정태연, 류원정, 2003). 이른바 '말 잘 듣고, 속 깊고, 착한 아이'였던 아동들이 성장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 공고했던 부모-자녀체제로 결속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며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들의 대인 관계 문제를 탐색해 보면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의 근

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이런 내담자들은 자신은 이제껏 꼭두각시처럼 부모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왔고, 늘 타인의 욕구와 기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자기도 타인에게 배려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표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한다(조은영, 2004). 부모나 가족에 대한 걱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인 뿐만 아니라 내면적 갈등도 야기하지 않지만, 배려가 지나쳐 스스로의 내적 욕구를 무시해온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Davies(2002)에 따르면, 이 같은 강박적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가족 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이 피상적으로는 매우 적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까닭에 부모에 대해 강박적으로 배려하는 자녀들의 심리적 경험이나 주관적 고통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Jurkovic, 1997).

그러나 일찍이 Bowlby(1973)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부모 및 타인에 대한 배려행동 이면에 나타나는 병리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도되어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상태를 부모화(parentification)라고 하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를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라고 한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 부모화

는 부모가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충족하지 못한 욕구를 자녀를 통해 추구하려 하거나 부모-자녀간 역할 경계선이 불명확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감정적인 융합관계를 이루어 감정 전이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부모가 경쟁적으로 자녀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할 경우에 발생한다(Minuchin, 1974).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고 부모와의 상호의존을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부모화된 자녀의 행동은 발달적으로 보았을 때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대인간의 상호관계를 활성화하는 ‘간주관성의 발달’이라는 발달 과정에 부합하고, 부모화된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유능하고 적응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모화 행동의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Minuchin, 1974). 그러나 이런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역기능은 상담 현상이나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불거지면서, 겉보기에 바람직하고 착한 자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신도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부모화된 자녀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만큼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였고, 특히 부모화 경향성은 가족이 갈등 상황에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더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은 이후 대인관계에서 주고받음에 있어 불공평함을 보고하였다(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뿐만 아니라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부모와의 상호의존을 더욱 돈독히 하여 부모로부터의 자아분화를 지연시키고, 자율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들(Erikson, 1959;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Karpel, 1977;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도 있었다.

이렇듯 부모화된 자녀들이 심리적 역기능과 대인관계 내에서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수준으로도 유의미한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근래 이르러 여러 차원에서 조망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화 집단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와 함께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Davies(2002)는 부모화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분명하고 세부적인 개념적 정의를 통해 부모화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일관성 있는 연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적응적 유형과 파괴적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모호한 개념으로서의 부모화가 아닌 심리적 역기능의 유무로서 부모화를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또한 Boszormenyi-Nagy와 Spark(1973)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왜곡이 파괴적인지의 여부는 그들 관계의 형태와 가족 내에서 주고받는 균형의 윤리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고 하여 부모화의 적응적인 형태도 존재함을 시사하였다(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 위와 같이 이전 연구들에서 적응적 부모화와 파괴적 부모화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요소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돌봄 및 주고받음에 있어 불공정함을 경험하는가의 여부이다. 즉 아동이 부모와 가족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은 적응적이라 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이 깨지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척도의 하

위 요인(도구적, 정서적 및 불공정 지각)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부모화의 심리적 독립 중 갈등적 독립 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화 경험의 각 요인별 차이에 대한 세부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화 유형

Jurkovic과 Thirkield(1999)는 부모화 개념을 부모화된 자녀의 역할 특성에 따라 정서적 도구화와 도구적 부모화 역할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화 유형을 불공정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가족 내의 보살핌이 상호호혜적일 때 적응적 부모화가, 일방적으로 주기만하여 불공정을 경험할 때 파괴적 부모화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Jurkovic et al., 2001)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단일 차원이 아닌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구적 부모 역할은 요리하기, 청소, 세탁,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등과 같이 아직 성인 또는 부모의 역할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장기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되는 물리적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Jurkovic, 1997). 정서적 부모 역할은 가족 구성원의 기분을 맞춰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로 가족의 우울한 분위기,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부모의 불안과 절망을 공감해주고 기분을 회복시켜주는 정서적 활동을 포함한다(조은영, 2004). 특히 정서적 차원의 부모화 경험이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Boszormenyi-Nagy & Spark, 1973; Karpel,

1976; Stierlin, 1974; 신주연, 2003에서 재인용)도 제시된 바 있다. 불공정성에 기반하여 볼 때 적응적 부모화는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모화된 아동이 되는 것에 매어두지 않는 특성이 있고, 가족 내에서 공평하게 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파괴적 부모화는 과도하고 발달상 적합하지 않은 정서적/도구적 보살핌을 포함하는 특성이 있다(Byng-Hall, 2002).

갈등적 독립수준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를 맺고, 사고와 행동에서 부모와는 개별화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Josselson, 1988), 심리적 독립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책감, 불안, 불신, 책임감, 금지, 분노, 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갈등적 독립이라고 한다(Blos, 1979;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수준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부모화 경향성이 강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Fullinwider-Buch & Jacobvitz, 1993)에 기반을 두었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독립수준을 살펴본 조은영과 정태연(2004)의 연구에서 부모화가 심리적 독립의 하위 요소인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 및 태도적 독립 중, 갈등적 독립 수준(Blos, 1979;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에서만 부적 상관을 가짐을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

과 부모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주장성

Wolpe(1958)는 자기주장(self-assertiveness)을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Fensterheim(1974)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행동, 느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행동, 소극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생활에 접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공지은, 2003에서 재인용). 자기주장 행동이 잘 되지 않는 원인에는 비주장적 환경, 비주장적 행동의 강화 등이 있다. 비주장적 환경이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일이 없었던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주장방법들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이며, 비주장적 행동의 강화란 주장적 행동을 잘 하지 못할 때 강화가 주어지는 등의 조작적 조건에 의한 행동 형성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유교적 문화유산은 주장적 행동보다는 비주장적 행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김인자, 1993).

따라서 우리는 부모화 집단, 특히 불공정 차원 중에서 파괴적 부모화 집단이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비주장적 환경이나 비주장적 행동의 강화로 인해 관계에서 불공평성을 경험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낮은 자기주장성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양가감정(ambivalence)은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에 긍정적 지시, 부정적 지시 둘 다를 갖는

정신활동 경향을 뜻하는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서를 담아두고 억압하기 보다는 표현하는 쪽이 건강에 이로우며, 정서 표현성의 결여는 심리 신체적인 불편과 연관된다는 입장이 수용되고 있다(Bleuler, 1950: 유주현, 2000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Emmons(1986)는 정서 표현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양가감정이 정서의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가감정이 정서표현성과는 독립적으로 주관적인 삶의 복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서표현의 상황에서 상반된 감정을 느껴서 표현을 못할 때 경험되는 양가감정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유주현,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는 가족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습득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역할과 욕구를 지각하는 부모화 집단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데서 높은 양가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종속변인으로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공정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불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자기주장성 수준이 낮을 것이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부모화의 하위요인(정서적/도구적, 불공정)들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중에서도 부모화 경험의 하위 차원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이들의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각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로써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예측과 사전개입을 통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해 시사

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Y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한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203명(남 122명, 여 8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0.55세($SD = 2.243$)였다.

측정도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부모화 경향성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화 척도 질문지,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과 Thirkield(1999)의 FRS-A(Filial Royalty Scoring-Adult)를 신주연(200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부모화를 각 30문항으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 기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부모화 3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의 하위요인으로는 도구적 부모화의 Cronbach's α 는 .764이었고, 이 문항의 예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형제

들을 돌볼 것을 기대한다”와 같았다. 정서적 부모화와 관련된 문항의 예는 “식구들 중에 누군가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걱정이 된다”이고, Cronbach's α 는 본 연구에서 .681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문항의 예는 “식구들은 나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다” 등이 있고, Cronbach's α 는 .801로 나타났다.

심리적 독립 척도

본 연구에서는 Hoffman(1984)이 제작하고 정은희(1992)가 번안하여 이준엽(1994)이 표준화한 심리적 독립척도 중에서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 척도(20문항),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립척도(20문항),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한 예를 들면 “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등이 있다. 본래는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 정도는 높음을 나타낸다. 갈등적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Cronbach's α 는 .906, 아버지에 대해서는 .922이었다.

자기주장성 척도

Rathus(1973)가 개발한 RAS(Rathus Assertiveness Scale)를 공지은(2003)이 번안한 자기주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장성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척도로 문항을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주장적이라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장성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정서 표현의 양가감정 척도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정서표현(10문항), 부정적 정서표현(18문항)에 대한 양가감정을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문항의 예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오랫동안 마음에 걸린다”와 같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3이었다.

절차

자료 측정은 심리학 관련 4개의 수업에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1점의 크레딧 점수를 인정받았다. 부모화 척도, 심리적 독립 척도, 자기주장성 척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척도,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응답시간은 약 20-25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불공정성과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의 양가감정과의 관계

표 1에는 부모화 척도 하위요인들(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과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공정성은 현재 정서적 부모화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

냈다. 즉, 불공정성을 느끼는 부모화 집단은 도구적 부모화와 관련이 높으며, $r = .295, p < .01$,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수준이 낮고, $r = -.561, p < .01$,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525, p < .01$.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주장성이 낮고, $r = -.298, p < .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은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88, p < .01$. 따라서 불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불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자기주장성 수준이 낮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더 높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의 경우는 서로 관련이 있었으며, $r = .485, p < .01$, 도구적 부모화는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 = -.208, p < .01$, 정서적 부모화 또한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 -.190, p < .01$.

부모화 집단 하위 요인들의 평균 점수를 집단 점수(cut-off)로 사용하여 상위 50% 집단을 부모화 경향성이 높은 집단, 하위 50% 집단을 부모화 경향성이 낮은 집단으로 나눈 후, 아버지,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구적 부모화의 높고 낮음이 종속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Wilks' $\Lambda = .945, F(4, 190) = 2.738, p < .05$, 불공정성 부모화 점수의 높고 낮음도 종속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Wilks' $\Lambda = .831, F(4, 190) = 9.628, p < .001$. 도구적 부모화의 경우, 자기주장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F(1,193) = 8.906, p < .01$, 도구적 부모화 경향이 높은 집단의 자기주장성 평균은

표 1. 부모화 집단 하위 변인들,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에 대한 양가성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M(SD)
1 현재도구적부모화							23.24(6.07)
2 현재정서적부모화	.485**						28.01(5.26)
3 현재불공정성	.295**	.112					21.49(5.90)
4 어머니와의 갈등적독립	-.083	-.125	-.525**				72.23(13.19)
5 아버지와의 갈등적독립	-.208**	-.190**	-.561**	.593**			72.05(14.95)
6 자기주장성	.119	.080	-.298**	.247**	.345**		91.76(13.97)
7 정서에 대한 양가성	.036	.099	.288**	-.340**	-.406**	-.621**	124.34(23.57)

N = 204, * $p < .05$, ** $p < .01$

94.01점($SD = 12.42$)으로 도구적 부모화 경향이 낮은 집단의 자기주장성 평균 89.93점($SD = 15.12$)에 비해 더 높았다. 즉, 도구적 부모화 경향이 높은 집단이 오히려 자기주장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정성의 높고, 낮음은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F(1,193) = 27.591, p < .001$,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F(1,193) = 23.675, p < .001$, 자기주장성, $F(1,193) = 13.269, p < .001$, 정서에 대한 양가감정, $F(1,193) = 8.290, p < .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은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평균 점수가 65.94점($SD = 11.94$)으로 불공정성을 덜 느끼는 집단($M = 77.52, SD = 11.52$)보다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았고,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M = 64.76, SD=13.16$) 역시 불공정성을 덜 느끼는 집단($M = 78.22, SD = 13.71$)보다 낮았다. 또한,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자기주장성 정도는($M = 88.62, SD = 12.02$)은 불공정성을 덜 느끼는 집단보다 낮았고($M = 94.58, SD =$

14.93),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은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M = 130.43, SD = 18.02$)이 그렇지 않은 집단($M = 119.40, SD = 26.31$)보다 더 높았다. 즉, 이 결과는 부모화 하위요인 중에서도 불공정성을 높게 경험하는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 분노와 화 등의 감정으로부터 덜 자유로우며 자기주장을 잘 못하고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세변인 간의 상호작용도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에서 나타났다, Wilks' $\Lambda = .950, F(4, 190) = 2.520, p < .05$.

부모화 하위요인들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세변인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표 2에서 나타내듯 불공정성은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에

대한 유의한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561$, $F(1,202) = 92.992$, $p < .001$, 불공정성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설명하는 부분은 31.5%였다. 두 번째 모델에서 불공정성에 정서적 부모화 변인까지 고려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2,201) = 49.883$, $p < .001$, R^2 변화량은 .016이었다.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불공정성과 정서적 부모화의 설명량은 33.2%였다.

다음으로 불공정성 점수의 상위 집단(즉,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 내에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불공정성만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beta = -.343$, $F(1,89) = 11.876$, $p < .001$, 불공정성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설명하는 양은 11.8% 이었다(표 3). 불공정성 점수의 하위 집단에서도 여전히 불공정성은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유의한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436$, $F(1,111) = 26.022$, $p < .001$, 불공정성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설명하는 부분은 19%였다(표 4). 모델에 불공정성과 함께 정서적 부모화 변인을 추가했을 때도 설명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2,110) = 16.480$, $p < .001$, R^2 변화량은 .041이었다.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불공정성과 정서적 부모화가 설명하는 정도는 23.1%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불공정성은 모든 경우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도구적 부모화는 모든 경우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서적 부모화는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집단 내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

표 2. 도구적,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B	β	R^2	F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불공정성	-1.424	-.561**	.315	92.992** (1, 202)
	정서적 부모화	-.367	-.129*	.325	49.883** (2, 201)

* $p < .05$, ** $p < .01$

표 3. 불공정성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부모화 하위요인들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B	β	R^2	F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불공정성	-1.141	-.343**	.118	11.876** (1, 89)

* $p < .05$, ** $p < .01$

표 4. 불공정성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부모화 하위요인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변인	B	β	R^2	F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불공정성	-1.940	-.436**	.190	26.022** (1, 111)
	정서적 부모화	-.545	-.202*	.231	16.480** (2, 110)

* $p < .05$, ** $p < .01$

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아니었지만, 불공정성을 덜 느끼는 집단 내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의 하위요인들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부모화된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이 갈등적 독립 수준, 자기주장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우선 부모화 척도의 하위변인들인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과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 자기주장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검증한 결과 불공정성은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과 자기주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모두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자기주장성과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특히 돌봄 및 주고받음에 있어 불공정성을 많이 경험한다고 느낄수록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수준이 낮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주장성도 낮으며 정서에 대한 양가감정은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이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정성은 아버

지의와 갈등적 독립의 33.2% 가량을 설명하였고, 불공정성은 그 중 31.5% 정도를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도되어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상태에서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 내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지만 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부모화된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 점수를 가지고 상위 50%와 하위 50%로 각각 부모화 집단, 비부모화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과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성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도구적 부모화의 경우 자기주장성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서적 부모화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자기주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특히 불공정성을 높게 경험하는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 분노와 화 등의 감정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가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가족 내의 보살핌이 상호호혜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여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특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모화가 나타나며, 부모화된 자녀들은 이후 대인관계에서 주고받음에 있어 불공평함을 보고한다는 연구결과(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Boszormenyi-Nagy & Spark, 1973; 조은영, 2004에서 재인용)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부모화 경향성은 높을지라도 불공정성을 많이 지각하는 것이 대인관계와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친 책임 의식, 불안과 분노, 불신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의 부모화 연구와 관련하여 적응적 부모화와 파괴적 부모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가 지각하는 불공정함을 경험하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차원의 부모화 경험이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론적 제안(Boszormenyi-Nagy & Spark, 1973; Karpel, 1976; Stierlin, 1974; 신주연, 2003에서 재인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적 독립 정도에서는 정서적 부모화의 상대적 영향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았으며,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 정도, 자기주장성,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의 단일집단이며 그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과 함께 효를 강조하는 유교 가치관의 영향과 동일체적이고 감정 공동체적인 한국 사회의 독특한

부모-자식 관계(최재석, 1982;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국 고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남을 배려하고 부모와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로 보고 좋은 성인의 모습으로 장려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부모화를 어느 수준 당연하게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이한 연구 대상에서 오는 차이나 통제되지 않은 요인에 의해 발생된 차이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부모화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분명하고 세부적인 개념적 정의를 통해 부모화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일관성 있는 연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Davies (2002)의 제안에 따라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배려심 많고 적응적인 행동으로 착한 자녀로 여겨지며, 내면의 고통이 간과되기 쉬운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모화 경험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불공정성이 특히 다양한 부모화 경향의 역기능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효와 유대감을 강조하는 우리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자녀가 느끼는 불공정성과 관련한 심리적 역기능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비적응적으로 부모화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내면적 위험성을 보고하고 이를 극복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모화된 자녀들을 위한 정신건강 차원의 더 깊이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단일 학교의 재학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청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 연구를 진행할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경우 비교적 부모와의 분리가 덜 된 상태이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의 개입과 부모-자녀간의 역동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는 청소년 집단이나,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준비하거나 형성하고 있는 성인 집단의 경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자를 다양화 하여 발달 단계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형제 서열이나 가족 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화의 다양한 하위 유형에 따른 특성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나 성별에 따른 부모화 특성 등에 대한 향후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심리적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서양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문화간 비교 연구 등도 향후 부모화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

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공지은 (2003). 자기주장성이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인자 (1993).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 발달단계로서의 '철 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발표회, 30-40.

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철 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이준엽 (1994). 심리적 독립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정태연, 류원정 (2003). 아동과 어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및 성역할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 논문집:

- 여성. 223-224.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격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65-82.
- 최재석 (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하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Y.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Fensterheim, H. (1974). Behavior therapy: Assertive training in groups. In Sager, & Kaplan (Eds.). *Progress in group and family therapy*. NY: Brunner Mazel.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oglia, L. R., Jurkovic, G. J., Burt, A. M., & Burge-Callaway, K. G. (1992). Generational boundary distortions by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Child-as-parent and child-as-mat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91-299.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ce from the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pp. 170-178.
- Josselson, R. (1988).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Y: Brunner/Mazel.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pe, J. (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6. 4.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6. 5. 1.
게 재 결 정 일 : 2006. 6. 20.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elf-assert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yung Mi Kim Ha Na Lee Ju Ri Jung Hyun Ju Jung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ub-factors of parentification(instrumental, emotional, unfairness) on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elf-assert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3 college students on parentificatio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elf-assert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group perceiving high unfairness within family showed less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lower self-assertiveness, and highe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ompared to the others perceiving relatively low unfairness. Highly instrumental parentification group also showed less self-assertivenes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highly emotional parentification group and its counterpart.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fication,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elf-assert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